

한국전쟁기 『8240부대편성표』 와 『8240부대원명단』

조 이 현
(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사)

1. 머리말
2. 한국전쟁기 8240부대의 활동
3. 『8240부대편성표』 · 『8240부대원명단』의 주요내용
4.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전쟁은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겪었던 사건 가운데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로 전투상황은 종결되었지만,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점에서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남침설 · 북침설 · 남침유도설 등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가라는 점을 밝히는데 집중되었다. 전후 냉전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일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탈냉전이 본격화된 이제는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전쟁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배제한다면, 한국전쟁은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8240부대 관련 자료는 그 동안 한국전쟁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구월산부대를 비롯하여 한국전쟁 동안 서해안 38선 이북 도서를 중심으로 활약

했던 반공유격대의 활동상을 밝히는데 중요 한 자료로 판단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2. 한국전쟁기 8240부대의 활동

8240부대는 우리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지만, 구월산부대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드라마나 수기 형태로 널리 알려져 왔다. 한국 전쟁 동안 서북해안 도서지역에는 반공청년 및 학생을 중심으로 유격대가 조직되어 반공 유격활동을 펼친 부대가 수십개에 이르렀다. 이들은 유엔군의 북진을 계기로 고향에서 치안대, 청년단, 학도호국대 등을 조직하여 반공활동에 앞장섰으나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후퇴하자 구월산 산악지역과 연안도서에 근거지를 확보하고 유격투쟁을 벌였다.

1951년 이후 전선이 중부지역에서 교착되자 유엔군은 이를 유격대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민군과 중국군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에 밝은 현지출신 유격대원들의 활동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이를 유격대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3개의 부대를 창설하였다. 서해안 백령도의 윌리엄 에이블기지(WILLIAM ABLE SECTION), 부

산근교의 공수훈련 및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베이커기지(BAKER SECTION), 그리고 특공 작전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한국군 해병 특수임무부대인 레드 윙(TASK FORCE RED WING, 석도 주둔) 부대가 그것이다. 또한 동해안에는 한국군 육군에서 편성한 을지 제1병단을 미 제8군이 인수하여 1951년 4월 15일 주문진에서 커크랜드(KIRKLAND) 부대를 창설하였다.

윌리엄 에이블기지에서는 서해안 지역 무장대원들을 규합, 유격연대를 편성하여 지역명칭을 부대명으로 사용했으나, 1951년 3월 에이블 기지가 표(豹 : LEOPARD) 부대로 공식 명명되면서 유격연대도 ‘동키(DONKEY : 당나귀)부대’로 일원화하여 견재순으로 숫자를 부여하였다. 유격부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유격부대가 계속 증가되자 유격부대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8240부대는 1951년 7월 26일 주한국동군사령부 연락파견대로 창설되었다. 한국 육군의 이영순(李永純) 대령이 주한8240부대 초대사령관으로 취임하였다. 8240부대에는 서북해안의 유격부대 뿐만 아니라 48년부터 대북첩보활동을 벌였던 KLO(Korean Liasion Office, 극동군사령

부 한국연락처)부대까지 포함되었다.¹⁾ 그 후 보다 치밀한 유격부대 지휘를 위해 기존의 표 부대는 웅진반도의 서부 및 서북지역의 유격대를 지휘하고, 울프팩(WOLFPACK) 사령부는 웅진반도 동부지역의 유격대를 지휘하도록 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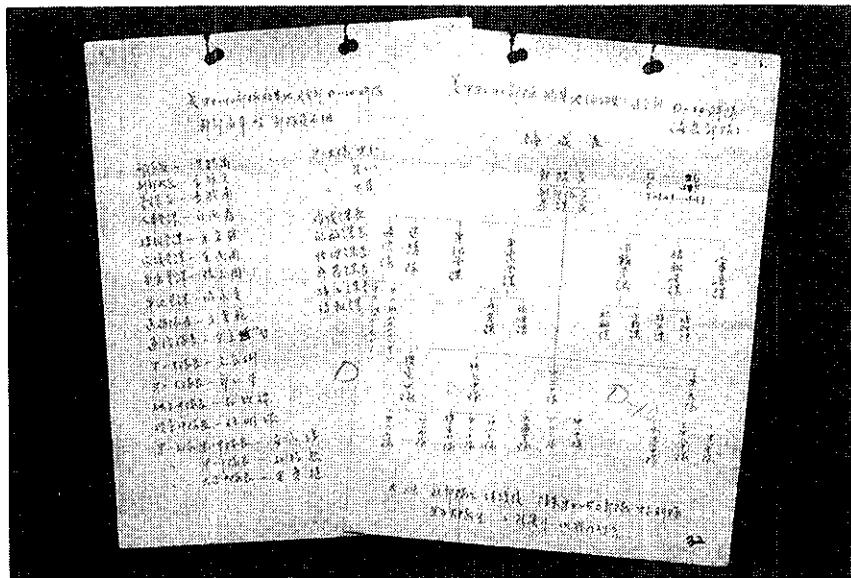
1951년 2월부터 53년 7월 휴전될 때까지 30여 개의 유격부대들은 북한지역 연안 일대와 내륙을 오가며 해안 침투 상륙작전, 교량·교통망 파괴, 특수첩보수집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자, 미군은 한미간의 협정을 체결하여 유격부대를 한국군으로 이관하게 된다. 즉, 1953년 8월 12일 국방부 일반명령 219호로 창설된 국방부 8250부대사령부가 유격부대의 인사, 행정, 포상 및 징계권을 이양받았다. 8250부대사령관에는 김완룡(金完龍)준장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휴전협정 체결로 유격부대는 사실상 그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이에 따라 한국군은 1954년 2월 8250부대를 공식 해체하고 육군으로 편입시켰다.

1) KLO부대는 위스키, 고트(GOAT), 선(SUN) 등 3개 부대로 구성되어 활동했다. 1951년 9월 8240부대로 통합되었으나, 미군 정보장교단 39명 몰살사건을 계기로 1952년 6월 8240부대에서 벗어나 각 파견대가 독립적인 부대 명칭으로 활동한 후 1953년 9월 해체되었다.

해체된 유격부대원들은 장교, 사병 등 현역으로 편입되거나 민간인으로 사회에 복귀하였다. 유격대 지휘관 가운데 753명이 장교로 현지임관되었으며, 대원 약 12,000명이 하사관·사병으로 현지입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유격부대원들은 미군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한국군에서는 이들의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생존 유격대원들을 중심으로 전우회를 조직하여 명예회복과 보훈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한국전쟁 당시 8240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전사한 대원 가운데, 인명이 확인된 3,719명의 위폐(位牌)가 1995년부터 1997년 까지 3차례 걸쳐 대전 국립묘지에 봉안된 바 있다.

3. 『8240부대편성표』 · 『8240부대원명단』의 주요내용

『8240부대편성표』와 『8240부대원명단』은 '98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본소로 이관한 영구보존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문서는 부대편성표 1권,



부대원명단 3권 등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대편성표에는 8240부대 각 연대별 부대 편제, 부대규모, 지휘관명단, 8250부대 관련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북공작대원 공로기장(功勞記章) 및 유격대원 표식 실물과 김일환(金一煥) 당시 국방차관의 8240부대 시찰장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부대원명부에는 성명, 출생년도, 학력, 직업, 종군부대, 종군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의 작성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8240부대편성표』와 『8240부대원명단』 표지에는 1954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부대편성표 내의 일부문서와 부대원명단에 기록된 사항을 고려할 때, 최소한 1961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8240부대편성표』에 임종득(林鍾得)²⁾ 명의의 '구월부대 편성표 및 전과록(戰果錄)'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의 작성시점이 단기[4294년 4월 13일자]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8240부대원명단』에 기록된 부대원의 출생년도, 학력, 직업이 유격부대 활동당시가 아니라 이 명단이 작성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최소한 1961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1년 혹은 그 전후 시점에서 8240부대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서의 작성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다. 수록된 내용을 볼 때 국방부에서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8240부대원명단』을 살펴보자. 총 3,323명의 부대원명단이 본적지별로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다. 명단을 본적지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다.

<8240부대원명단 본적지별 현황>

본적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	총계
인원	953	1,631	97	186	250	205	1	3,323

제1권에는 경기도가 본적인 대원명단이, 2권에는 서울이 본적인 대원명단이, 3권에는 강원,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제주지역이 본적인 대원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종군부대란에 적힌 부대명칭도 본적지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즉, 경기도가 본적인 대원들에 대해서는 소속부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반면, 그 외 지역이 본적인 대원들은 8240, 8250부대로만 기재되어 있다. 즉, 경기도가

2) 임종득은 구월부대 부대장으로 활동했으며, 부대 해체후 협역장교로 편입되었으며, 이 문서 작성당시에도 협역으로 근무중이었다.

본적인 대원들의 종군부대는 8240, 8250부대 외에 D-20, D-21, D-11, D-6, D-4, D-15, D-13, D-7 8250WP·구월, 타이거, 아벤리, 고트, 강화(江華), 8240WP, 스톰부대, 육군을지제2병단, 스케논부대 등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8240부대편성표』에 나타난 기록에 대해 살펴보자. 부대편성표에는 8240부대의 각연대별 부대편제표와 간부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각 연대별로 편성된 부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240부대원 총수>

부대명	8240부대	8250부대 개편시	비고
계	42,273	18,361	
제1연대	9,380	2,069	서해도서
제2연대	7,999	3,131	강화도
제6연대	12,133	8,870	서해도서
제5연대	3,126	1,320	"
제3연대	9,635	2,971	속초

8240부대원 총수가 4만 2천 여명에 이른 것은 각 부대별로 가장 인원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240부대편성표는 부대편제표가 대부분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임종득 명의의 '구월부대 편성표 및 전과록'에는 구월부대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국제연합한국유격 전우회 귀하' 형식의 이 문서는 구월부대의 창설과정과 간부명단, 51년 4월 15일 김종벽 대위가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내용, 구월부대 전과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구월부대³⁾는 1950년 12월 7일 황해도 은울군 장연에서 동향인이며 한국군 육군 정보장교였던 김종벽(金宗璧)⁴⁾ 대위를 부대장으로 하여 창설된 연풍부대(連豐部隊)가 모체였다. 부대원들은 6.25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반공유격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로서, 중공군의 공세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한 후에도 고향지역에 남아 계

3) 구월부대는 백령도의 표(LEOPARD)부대사령부 산하 동키2부대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나, 미군측과의 지휘권 갈등으로 해체된 후 동키2부대로 재결성되어 활동하였다.

4) 김종벽은 구월부대의 활동상을 정리하여 『구월산』(육본 정보국, 1955)을 펴낸 바 있다. 참고로 그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14년 황해도 은울군 이도면 고현리에서 출생

- 인천상업학교 3학년 재학중 광주학생사건으로 퇴학당하고, 이후 해방될 때까지 만주 봉천과 하얼빈에서 생활

- 해방 후 서울에서 서북청년단에 가입, 문화부장으로 활동

- 여순사건 직후 육사 8기특별2반 입교, 수료후 육본 정보국에서 근무

속 공산군과 싸워왔다. 창설 당시 부대규모는 150명 정도였으며,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51년 전성기에는 2,500명까지 이르렀다.

1951년 3월초 연풍부대는 구월부대로 개편되어 서해지구의 초도, 석도, 웅도, 청양도, 상취라도, 하취라도, 피도, 능금도 등의 도서방위와 구월산지구에 주둔하면서 인민군을 공격하였다. 서해를 항해하던 해군함정 301, 302, 303, 304, 313, 3107, 308, 310정 등이 수시로 웅도(熊島) 부근까지 접근하여 지원사격을 해주어 구월부대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구월부대는 북한의 정규군대였던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여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1950년 12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치른 전투에서 구월부대는 인민군 사살 583

명, 생포 323명의 전과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유격대원의 피해도 커서 전사자와 부상자 각각 113명과 88명에 이르렀다. 또한 유격대는 적의 소총, 기관총, 칙사포, 박격포, 따발총, 실탄 등 각종 무기를 노획하였다.⁵⁾

이 밖에 『8240부대편성표』에는 대북공작대원 공로기장과 유격대원 표식이 실물로

첨부되어 있는데, 침투방식에 따라 기장모양이 달랐던 점을 볼 수 있다. 공로기장에는 태극문양이 박혀 있으며, 선편침투 공로기장에는 독수리가 두 개의 노를 잡고 있는 모양, 낙하산침투 공로기장에는 독수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모양, 도보침투 공로기장에는 발 모양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는 모양으로 꾸며져 있다. 유격대원표식은 낙하산과 소총이 어우러져 있으며 실로 훠메어 군복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8250부대 관련문서에는 부대원의 신분증 발급, 부대원 전사자 및 상이자 처우, 부대 표식 제정 및 유엔종군 기장수여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맷음말

한국전쟁 동안 서해안 도서를 근거지로 하여 38선 이북에서 반공 유격활동을 벌였던 8240부대 관련자료는 현재까지 공개된 것이 거의 없다. 여기에서 소개한 『8240부대편성표』와 『8240부대원명단』은 그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98년 10월 이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유격대원 명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존 유격대원이나 그 유가족들의 열람요청이

5) 구월부대의 전과록에 기록된 전투성과는 김종벽이 꺼낸 『구월산』의 부록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전제한 것이다.

잇따랐다. 또한 유격대 전우회 조직인 한국 유격군전우회총연합회, KLO·8240부대전우회 등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였다. 유격부대원들은 미군 소속으로 생사를 넘나들면서는 유격·첩보활동에 종사했지만, 그 동안 미군측이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신들의 활동을 입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우리측 자료가 발굴·공개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료를 통해 한국전쟁기 반공 유격부대의 부대편제, 부대구성 및 규모, 지휘관 협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8240부대는 예하에 5개 연대 30여 개의 유격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 규모는 최대 4만 2천 여명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생존 유격부대원들의 증언자료와 비교검토를 통해 8240부대의 보다 정확한 활동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